정운 "후회없이 모든 땀방울 흘리겠다"

3연승 가도 달리면 선두권 향한 발판 마련
내일 오후 4시 제주Utd-수원FC 6R 격돌
득점 공동 선두 안병준에 제주 주민규 맞불

올 시즌 제주유나이티드의 수비를 이끌고 있는 정운.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리그 3연승 길목에서 수원FC와 만난다.

제주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수원FC와 격돌한다. 최근 적지에서 부천FC 1995와 안산 그리너스를 연파한 제주는 2승 1무 2패 승점 7점을 확보하며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수원FC까지 제압, 3연승 가도를 달린다면 선두권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수원FC는 쉽지 않은 상대다. 최근 FA컵 경기 포함 6경기에서 22골을 터뜨렸다. 5경기 연속골과 함께 K리그2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병준(총 6골)이 요주의 인물이다.

이에 제주는 3경기 연속골을 뽑아낸 주민규(총 4골)로 맞불을 놓는다. 특히 주민규는 선발=득점 공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승리의 초대장은 기록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수비수 정운의 존재감이다. 정운은 올 시즌 리그 전 경기(5경기)에 출전해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제주가 스리백에서 포백으로 전환한 뒤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공수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왼쪽 측면 수비수 정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운은 차단(경기당 7개, 팀내 1위), 획득(경기당 11.2개, 팀내 1위), 인터셉트(경기당 2.6개 팀내 2위) 등 각종 수비지표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공격 전환 시에도 경기당 전방패스 23.4개(팀내 1위, 전체 2위)를 배달하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남기일 감독은 "베테랑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내고 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정운은 "베테랑 선수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 발 더 뛰고 수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며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잘하면 선수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도 후회없이 모든 땀방울을 흘리고 오겠다"라고 다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스페인 진출 장슬기 현대제철 복귀

여자실업축구 WK리그 합류
코로나로 리그 중단돼 귀국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여자 축구대표팀의 간판 수비수 장슬기(26)가 국내 리그로 돌아온다.

장슬기의 유럽 진출 전 소속팀인 여자실업축구 WK리그 인천 현대제철은 11일 그의 국내 복귀와 팀 합류를 발표했다.

장슬기는 올해 초 스페인 여자축구 1부리그(프리메라 디비시온) 소속인 마드리드 CF 페메니노(마드리드 CFF)와 계약, 1월 12일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풀타임 데뷔전을 치르는 등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페인 여자축구 리그가 중단돼 귀국했고, 이후 2019-2020시즌은 조기 종료했다.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에 고심하던 장슬기는 경기에 출전하며 내년 2월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등 미래를 준비하고자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슬기는 2015년 일본 고베 아이낙에서 실업 선수로 데뷔, 이듬해부터 스페인 진출 전까지 현대제철에서 뛰며 WK리그 연속 우승에 힘을 보탰다. WK리그 통산 기록은 105경기 44골 33도움이다.

2010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우승에 힘을 보태는 등 연령별 대표부터 한국 여자축구의 주축으로 활약한 그는 2013년 키프로스컵을 시작으로 A매치 65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다.

장슬기는 15일 개막하는 2020시즌 WK리그 정규리그에 출전할 예정이다. 8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현대제철은 15일 수원도시공사와의 홈 경기로 시즌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토종 거포' 박병호의 지독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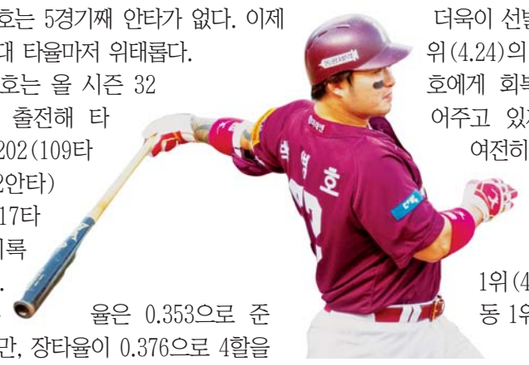
5경기 무안타… 타율 최하위
삼진과 잔루는 리그 공동 1위

리그 최고의 타자로 꼽히는 박병호(34·키움 히어로즈·사진)가 타율 최하위로 추락했다.

박병호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전에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 2삼진에 그쳤다. 중심 타선이 침묵한 키움은 리그 평균자책점 2위인 에릭 요키시가 선발 등판한 이 날 경기에서 1-4로 졌다.

박병호는 5경기째 안타가 없다. 이제는 2할대 타율마저 위태롭다.

박병호는 올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2(109타수 22안타) 6홈런 17타점을 기록 중이다.



출루율은 0.353으로 준수하지만, 장타율이 0.376으로 4할을 넘지 않는다. 현재 박병호는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가운데 타율 최하위다.

시즌 초반만 해도 박병호의 부진을 놓고 지난 시즌 KBO리그 타점왕 제리 샌즈의 공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5번 타자로서 뒤를 든든하게 받쳤던 샌즈가 없어서 박병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금의 키움에서 샌즈의 빈자리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파괴력 있는 스윙의 박동원이 5번 타자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6번에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병우가 새 팀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더욱이 선발 평균자책점 3위(4.24)의 마운드가 박병호에게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지만, 박병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병호는 현재 리그에서 삼진 1위(44개), 잔루 공동 1위(73개)다. 연합뉴스

기성용 첫 경기서 메시와 맞붙나

14일 바르셀로나와 28R 경기
이강인 내일 레반테전 준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가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 축구의 대표주자 기성용(31·마요르카)과 이강인(19·발렌시아)이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성용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스페인 팔마의 에스타디 데 손 모시에서 FC바르셀로나와의 2019-2020 라리가 28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라리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단됐다가 12일 세비야-레알 베티스 경기로 재개한다.

기성용은 올해 1월 잉글랜드 뉴캐슬과의 계약이 끝나고 국내 복귀를 타진하다가 불발되자 2월 마요르카에 입단, 에이바르전 교체 투입으로 라리가에 데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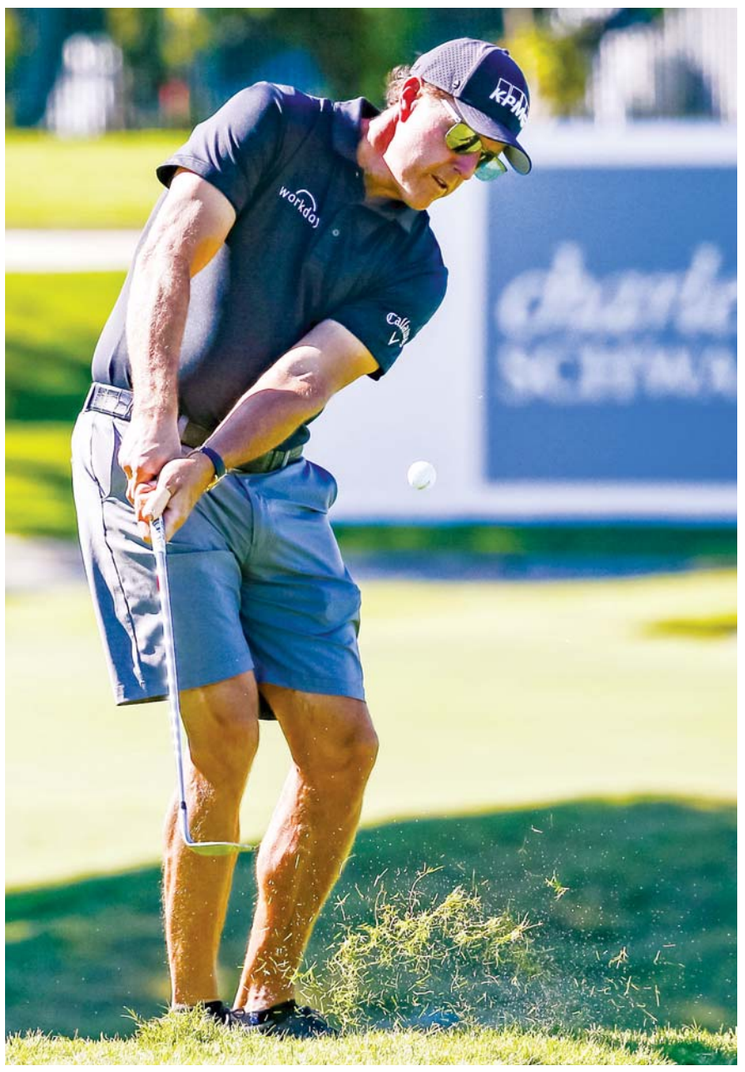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리그가 중단되면서 실전에 더 나서지 못한 채 석 달을 보냈다. 기성용은 애초 이번 시즌 종료 이후인 이달 말까지 마요르카와 계약했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시즌 도중에 거취의 불확실성이 생겼다. 재개 이후 한번의 출전 기회가 기성용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특히 기성용은 '꿈의 무대' 라리가 진출을 결정하며 세계적인 스타들과의 대결이 "선수 생활 이후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그 대표주자가 메시인 만큼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에 앞서 13일 오전 5시에는 이강인이 레반테와의 홈 경기를 준비한다.

부상, 퇴장 징계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나서지는 못해 리그 선발 출전은 2경기뿐이었다.

발렌시아의 '이적 불가' 고수에도 프랑스 올랭피크 마르세유 등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라 이강인에게도 재개 이후 경기는 중요하다. 주중 경기도 수시로 편성되는 가운데 선수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대 임시 규정이 라리가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들이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우승자의 관록을 보여줄게" 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가 개최되기 전날인 10일(현지시간) 미국 택사스 주 포트워스 콜로니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찰스 슈와브 챌린지 골프 토너먼트 연습라운드. 필 미켈슨이 그린에서 샷을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